DOI | https://DOI.org/10.21481/jbunka..81.201905.227.

다나카 고미마사와 한국전쟁

—소설「상륙(上陸)」의 고찰을 중심으로—

이 문 호*
(e-mail : moono327@naver.com)

<목 차>

1. 들어가기
2. 다나카의 전쟁체험
2.1. 전전의 다나카
2.2. 복원후의 다나카
3. 전후 민주주의적 가치와 한국전쟁
3.1. 평화주의와 국민주권
3.2. 기본적 인권의 존중
4. 모지항 상륙의 역설
5. 나가기

キーワード：田中小実昌(Tanaka komimasa), 朝鮮戦争(Korean war), 平和主義(Pacifism), 戦後民主主義(Post-war democracy), 門司(Moji), ヒューマニズム(Humanism)

1. 들어가기

소설가이자 수필가인 다나카 고미마사(田中小実昌, 1925-2000, 이하 다나카)는 애초 추리소설 번역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였으나 1970년대를 기점으로 번역보다는 창작에 집중하며 본격적인 작가로서의 입지를 다져 나갔다. 그런 다나카 문학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전쟁체험으로, 그는 구제(旧制) 후쿠오카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1944년, 19세의 나이로 육군에 징집되어 중국전선의 철도경비대에서 복무하였다. 패전을 맞이하기까지 매우 짧은 기간이긴 하였으나 이때의 경험은 많은 에세이와 소설로 작품화되어 그간 다나카 문학에 대한 평가의 중심을 이루어 왔다.[1] 그런데 이에 반해 다나카 문

* 이바라키대학교, 강사, 일본근현대문학

1) 전전의 전쟁체험을 바탕으로 한 대표작으로는 다니자키 준이치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단편소설집『포로포로(ポロポロ)』(央公論社, 1979年)를 꼽을 수 있다. 다키 유스케는 『포로포로』를 논하면

www.kci.go.kr

학을 논함에 있어 절대 간과할 수 없는 한국전쟁과의 관련에 관한 연구는 이제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약 3년간 지속된 한국전쟁에 일본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미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하며 많은 일본인이 직간접적으로 미군을 지원하였다[2]. 해상운송을 통한 전쟁 물자의 조달에 있어서도 주일 미군은 막대한 병력과 전쟁 물자를 신속하게 한반도에 전개하기 위하여 일본의 항해 인력과 항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특히 물자의 선적과 하역작업을 위해 많은 수의 노동자가 필요했는데 이러한 노동자들은 직업안정소를 통하여 미군에게 공급되었고, 당시 일본 사회의 높은 실업률과 불황으로 인해 다양한 성격과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그들은 한국전쟁의 보이지 않는 조력자들로 다나카도 그들 중 한명이었다. 다나카는 일본으로의 복원(1946년)후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미군 기지와 항구에서 미군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통역, 노동자감독으로 일했으며 이 기간은 한국전쟁이 발발해 휴전에 이른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다나카는 이 시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전쟁을 제재로 한 단편소설 「상륙(上陸)」을 1957년 자신이 창간 멤버이기도 했던 동인지 『시그마(シグマ)』에 처음 발표하였다. 동인지 우수작으로 선정된 「상륙」은 그해 12월 잡지 『신쵸(新潮)』[3]에 게재되어 주목을 받았고 그로부터 약 50여년이 흐른 2005년에 초기 단편소설집 『상륙』[4]으로 간행되어 정식 수록되었다. 「상륙」은 동경만에서 미군의 군수 물자를 싣고 한국으로 출항한 7명의 일본인 노동자들

서, 노마 히로시나 오오카 쇼헤이의 작업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가혹 했을 군대 체험을 오랜 시간 들여 의심하고 의심하며 전례가 없는 신랄한 문학으로 탄생시켰다고 평가하였다. 多岐裕介(1985)「懐疑の果てに―田中小実昌『ポロポロ』」『批評果つる地平』旺史社、p.35. 이와 궤를 같이하는 평가로서 『포로포로』를 포함해 1970년대와 80년대에 발표된 7편의 소설이 수록된 쇼와문학전집(小学館, 1988)의 해설을 맡은 이케우치 오사무는 다나카가 경험한 '사실'이 '소설'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30년)이 걸린 점을 지적하고 그의 문학을 전혀 모순되는 두 가지 성격이 동시에 공존하는 '생(生)이라는 기괴한 힘'으로 논하고 있다. 池内紀(1988)「田中小実昌 · 人と作品」『昭和文学全集第31巻』小学館、pp.958-960. 한편 오오바 가야아키는 1950년대 초기 소설로부터 에세이와 번역작업을 아우르는 다나카의 문학 작업을 개관했으나 「상륙」이나 한국전쟁에 관하여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大庭萱朗(2006)「重なりあうもの 第一回」『公評』43(2)、公評社、pp.74-77.

2) 일례로 당시 미 해군의 요청에 의해 해상보안청 일본 특별 소해대(日本特別掃海隊)가 인천, 원산, 군산, 진남포 해역에서 북한이 부설한 기뢰의 소해 작업을 벌였는데, 이때 약1200명에 달하는 구(旧) 일본 해군 출신 대원들이 참가해 인적지원을 실시하였다. 이종판(2003)「한국전쟁기 유엔에 대한 일본의 협력활동」『군사』제48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pp.148-150.

3) 田中小実昌(1957)『新潮』54(12)、新潮社、pp.149-159.

4) 田中小実昌(2005)『上陸』河出文庫

www.kci.go.kr

이 한국으로 가기 전에 들른 기타큐슈의 모지항(門司港)에 내려 탈출하려다 총에 맞는 비극적 결말을 그리고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상륙」에 관한 본격적인 작품론은 아직 없지만 문학평론가인 나리타 류이치가 '작중 전쟁은 싫다고 반복해서 말했던 가슴이 얇은 젊은 남자가 미군에게 사살되고 마는 장면에서 다나카의 어쩌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엿보이며, 배에 타고 있던 노동자들이 한국이 아닌 모지항에 상륙하는 설정 또한 뭐라 말 할 수 없는 아이러니'[5] 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매우 날카로운 지적으로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언급을 참고해가며 이제까지 중요시되지 않았던 전후 다나카와 한국전쟁을 둘러싼 상황을 개관하고 「상륙」의 분석을 통해 작가가 한국전쟁을 매개로 제기하고자 했던 문제들과 작품의 의의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분석을 위해 2005년 간행된 『上陸』(河出文庫) 수록 「上陸」을 텍스트로 한다.

2. 다나카의 전쟁체험

다나카는 생전 다수의 에세이를 통해 자신의 성장과정과 중일전쟁 참전 일화, 한국전쟁 당시 미군 기지에서 노동자로 일 했던 젊은 나날 등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본 절에서는 다나카의 연보[6]와 그간의 에세이를 모아 2003년에 발간된 자전[7]을 바탕으로 전전부터 복원후로 이어지는 다나카의 전쟁체험을 한국전쟁에 초점을 맞춰 개관하고자 한다.

2.1. 전전의 다나카

다나카가 태어난 곳은 도쿄의 센다가야로 그 곳에는 목사였던 다나카의 아버지(田中種助)가 처음으로 부임했던 시민교회가 있었다. 이후 시민교회를 사직하고 기타큐슈의 고쿠라(小倉)시에 있는 서남여학원(西南女学院) 시온산(シオン山)교회에 부임한 다나카의 아버지는 1929년, 히로시마현 구레(呉)시의 침례

5) 成田龍一(2012)「解説」『戦争と文学 1 朝鮮戦争』集英社、p.658.
6) 関井光男編(2000)「田中小実昌年譜」『ユリイカ』32(9), 青土社、pp.229-237.
7) 田中小実昌(2003)『田中小実昌エッセイコレクション6 自伝』筑摩文庫.

www.kci.go.kr

교회로 옮겨 목회활동을 하게 된다. 다나카가 자라난 구레시는 제국 해군의 대표적인 군항으로 전함야마토가 만들어진 구레해군공창(工廠)이외에도 많은 해군관련 공장과 시설이 밀집해 있었는데, 그런 까닭에 도시에는 해군병사들과 각지에서 흘러들어온 징용공들로 넘쳐 났다.[8] 고등학교 시절 이미 근로동원으로 사세보에 있는 해군 공창에 보내졌던 다나카는 1944년 12월, 학도 징집 되어 보충대격인 야마구치 연대에 입영, 그곳에서 5일을 체류한 뒤 곧바로 규슈의 하카타를 통해 현해탄을 건너 부산에 상륙하였다. 부산에서부터 열차로 조선을 가로질러 만주에 도착한 그의 연대는 다시 남만주 철도로 갈아타고 산해관, 천진, 제남, 서주 등을 거쳐 양자강 유역에 내려 배로 갈아타고 남경에 도착한다. 다나카의 부대가 남경 성내의 한 여자대학에 체류하며 훈련을 받을 당시 입영동기 후지이와 중학교시절 동급생인 다니구치, 초등학교 동창인 옷쵸코가 뇌염으로 비명을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며 불과 몇 시간 만에 절명하는 비참한 죽음을 목격한다. 그는 이 상황을 다음 인용과 같이 보고 있었다.

> 우리들은 불과 5일간 내지에 머무르고 대륙으로 왔다. 아직 군대로서의 훈련은 거의 받지 않았는데 남경에 도착하기 무섭게 이런 식으로 명예 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정말로 이들은 명예 전사로 가족에게 보고되고 있다. 동료 신병 중 적의 총탄을 맞고 죽은 이는 들어 본적이 없다. 하지만 죽은 이는 많다. 모두 이런 명예 전사다.[9]

‘명예 전사’란 군대에서 전투가 아닌 질병이나 사고로 죽음을 당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말로 다나카의 부대는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명예 전사’였다. 다나카는 최종적으로 중국 내륙의 호북성과 호남성의 경계에 있는 월한선(粤漢線)철도경비중대에 배속되었는데 그곳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과는 거리가 멀었으나 남경에서 호남성까지 행군으로 이동하는 사이, 그리고 배속부대에 도착 후에 많은 동료들의 죽음을 마주하게 된다. 예를 들어 행군으로 몸이 쇠약해진 신병 모리야마가 점호 중 쓰러져 그대로 숨을 거둔 이야기나 자신의 옆자리에서 자던 동료신병이 영양실조로 추위를 타자 체온을 유지시키기 위해 끌어안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죽어 있었다던가하는 체험이 그것이다.[10]

8) 전게서, p.21, p.88-89.
9) 전게서, p.105.

www.kci.go.kr

뿐만 아니라 다나카 본인도 적리아메바와 말라리아, 콜레라 등 각종 풍토병에 감염되어 야전병원을 수시로 출입하였으며 패전 직전 다시 적리아메바 의심 증상을 보여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그곳에서 패전을 맞이하였다.

위와 같은 다나카의 전쟁체험은 197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작품화 되는데 이에 대해 이토 요시타카는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 다나카에게 있어 진짜 '전쟁'은 현장에서의 체험이 아니라 오히려 배속부대까지의 행군 그 자체와 패전 후에 일본으로 돌아오기까지 말라리아 콜레라 아메바적리등과의 투병, 거기에 복원후의 '전후사회'에의 위화감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세 가지야말로 다나카가 그리는 '전쟁체험'의 원풍경이라고 할 수 있다.[11]

이토에 따르면 다나카가 그리는 '전쟁체험의 원풍경'은 피비린내 진동하는 살육과 인간본성의 극한을 체험하는 전장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보다는 행군의 피로나 전염병에 시달리는 등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비전투적인 요소였다. 그 중에서도 복원후의 '전후사회'에의 위화감과 관련하여, 자신들을 파괴하고 굴복시킨 점령자를 동경하며 복원 후 10년에 걸쳐 점령군 기지에서 일했던 다나카의 경험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특히나 점령군 기지에 소속되어 보고 체험한 한국전쟁을 다나카가 그리는 '전쟁체험의 원풍경'속에 새로이 편입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복원후의 다나카를 살펴보고자 한다.

2.2. 복원후의 다나카

스무 살에 패전을 맞이한 다나카는 1946년 8월 일본으로 돌아와 동경대학 문학부 철학과에 입학한다. 하지만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결석을 되풀이하여 훗날 제적을 당하고 마는데 1947년부터는 미군 기지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 미군통신사단 장교클럽에서 바텐더로 일했고, 인원정리로 해고되자 병사식당으로 옮겼으며 1948년에는 다시 장교클럽의 잡역부로 취직

10) 전게서, p.118-133.
11)伊藤義老(2005)「田中小実昌論ーその語りのあり方ー」『愛知淑徳大学国語国文』28、愛知淑徳大学国文学会、p.173.

www.kci.go.kr

했으나 절도용의로 벌금을 물고 해고된다. 그리고 1950년, 아직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 미군을 상대로 예능공연을 펼치는 '스타 북킹 오피스'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지인의 여동생의 소개로 미군 클럽에 출입하는 예능인들의 통역일을 소개받았으나 그가 사무실로 찾아갔을 때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어 미군들이 모두 한국으로 떠나고 없었던 일로 되어버린다.

다나카는 그 즈음 후쿠오카 출신의 선배가 살고 있는 고코쿄(浩々居)라는 기숙사에 신세를 지고 있었는데 당시의 상황을 아래와 같이 회상하고 있다.

>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은 신문에서 읽고는 있었다. (중략) 조선에서의 전쟁 때문에 기타큐슈에서 등화관제가 실시된 것을 기타큐슈출신의 기숙사생으로부터 소곤대는 소리로 들었다. 고코쿄에서는 조선에서의 전쟁은 소곤소곤 속삭여졌는데 그것은 매우 생생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기타큐슈와 동경은 멀다. 게다가 역시나 미군 점령하이기 때문에 조그만 소리로 속삭이는 기숙사생들과 달리 나는 조선반도에 가까운 기타큐슈에 부모님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또 조선에서의 전쟁이 나의 구직활동에 관계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아니, 사실은 관계가 있었지만, 이때도 나는 멍했을 뿐이었다.[12]

인용문에서 다나카는 최초 한국전쟁이 기타큐슈지역과 관련된 사람들의 국지적 이슈이며 자신과는 무관한 사건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반도와 가까운 지리적 조건상 기타큐슈 지역 일대의 항만도시들은 이미 미군의 한국전쟁수행을 위한 거점[13]이 되어있던 반면 자신이 있는 동경까지는 아직 전쟁의 여파가 피부로 와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역일자리가 사라진 일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미군과 관련된 일자리를 전전하던 다나카에게 한국전쟁은 결코 무관한 일이 아니었다. 또한 후쿠오카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자신이 자라난 구레시의 중학교 입학시험에 떨어진 뒤 후쿠오카에 있는 서남학원 중학부에 진학하여 시모노세키부터 모지까지 가는 관문(関門)연락선을 타야했던

12) 다나카의 전게서, pp.295-296.

13) 실제 기타큐슈각지와 야마구치현 서부는 한국전쟁을 피부로 느끼던 지역으로 1950년 6월 29일 정체불명의 비행기 1기가 기타큐슈시에 접근하여 고쿠라, 도바타(戸畑), 야하타(八幡), 모지의 네 지구는 미군에 의해 경계경보가 발령된 후 공습을 염두에 둔 등화관제가 실시되었다. 石丸安蔵(2007)「朝鮮戦争と日本の港湾—国連軍への支援とその影響—」『NIDS security studies』9(3)、防衛省防衛研究所、p.60.

www.kci.go.kr

다나카에게 기타큐슈와 모지는 한국전쟁 전부터 매우 익숙한 곳이었음에 틀림없으며 이러한 지리감은 이후 「상륙」의 집필에 적지 않게 영향을 끼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가 마지막에 '멍해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다나카에 따르면 한국전쟁발발 이후 국철 역 계단에는 '항만하역(港湾荷役) 삼백 명 모집' 같은 구인광고가 붙어 있었고 그 인원수의 많음에 놀라 '정말일까'라고 생각하였다고 한다.[14] 결국 전후의 극심한 불황과 빈곤으로 다나카도 다시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한국전쟁 발발 이후 미군에게 공급할 인력을 대규모로 모집하던 이이다바시 직업안정소를 찾는다. 그는 거기에서 한국전쟁소식을 듣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데,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 두 인용문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 아직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기 전 내가 중학교 삼학년 즈음, '모두가 나 같으면 전쟁 따윈 일어나지 않을 텐데' 라고 아버지에게 말한 적이 있다. 진주만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된 게 아니었다. 그전까지도 긴 시간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다. 이미 일반가정에서는 단 음식도 떨어지고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배고픈 하루하루였다. 전쟁에는 진저리가 났다. 어려운 반전이론 따위가 아니다. 열 네, 다섯 살 중학교 삼학년이라도 이렇게 힘들고, 끝도 없는, 따분한 전쟁은 정말로 싫었다.[15]

> '정신 차려. 전쟁이야 전쟁이라고!' 이이다바시 직업안정소의 젊은이가 흥분해 소리를 쳐 나는 멍하니 그 사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길고 긴 전쟁은 끝난 거 아니었나. 1950년 모두가 배를 곯고 있어 딱히 평화랄 것도 없지만 전쟁은 끝났다. 전쟁 따위 꿈만 같은 느낌이었다. 전쟁에서 지고 배를 곯고, 사실 미국과 전쟁하기 훨씬 전부터 배는 고팠지만, 어쨌든 전쟁은 없다. 그런 것을 직업안정소의 젊은이는 '전쟁이다'라고 잔뜩 소란을 떨고 있다. 나는 정말로 멍해졌다.[16]

먼저 첫 번째 인용은 다나카가 태평양전쟁(1941) 전부터 일본이 벌이고 있던 중일전쟁(1935) 및 2차 세계대전(1940)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알 수 있는 문장이다. 다나카가 기억하는 전쟁은 '배고픔', '불편함', '진저리' 같은 부

14) 다나카의 전게서, p.298.
15) 전게서, p.13.
16) 전게서, p.295.

www.kci.go.kr

정적인 감각으로 표현되고 있고 이런 감각들은 기본적으로 먹는 행위와 가난에서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나카는 이것이 미국과는 상관없는 일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직업안정소에 갔던 당시의 심경을 회상한 두 번째 인용에서도 그는 미국과의 전쟁 전부터 이어져온 배고픔에 대해 무려 세 번이나 언급하고 있다. 그에게 과거의 전쟁은 배고픔으로 모습을 바꾸어 생활 속에서 여전히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으며 그 문제의 책임소재는 일본에 있다는 인식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다나카는 적어도 '미국과의 전쟁(War against the America)'만은 1945년의 패전으로 완전히 끝을 맺었다고 믿었다. '전쟁은 없다'는 그의 절박한 선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런데 갑자기 직업안정소직원의 입을 통해 이제는 피점령국으로서 점령국 미국이 수행하는 전쟁(한국전쟁)에 자동으로 편입되어 의지와 상관없이 새로운 '미국과의 전쟁(War with the America)'을 시작해야하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이것이 다나카를 당혹스럽게 했으며 그가 '멍해진' 이유였다. 배고픔과 한국전쟁이라는 두 현실은 이후 다나카를 요코타 기지로 인도하고 그곳에서 그는 한국전쟁을 지켜보게 된다.

다나카는 1950년 9월부터 약 2년간 요코타 기지에 채용되어 밤 덤프(BOMB DUMP) 즉 B29폭격기에 실릴 폭탄 운반 업무를 맡게 된다. '내가 밤 덤프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즈음 조선에 있는 미군은 반도의 끝자락까지 밀려서 까딱하면 제2의 덩케르크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힘든 싸움을 하던 시기였다.'[17]는 회상으로 보아 그가 일하기 시작한 것은 그해 9월 15일에 개시된 인천상륙작전 직전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미군과 국군은 인민군의 파상공세에 밀려 부산에 고립되었고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기 위하여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다나카가 미군의 처지를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전격전으로 프랑스 북부 덩케르크 해안 일대에 고립되었다가 가까스로 철수한 영국군의 그것에 빗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군에 감정이입한 다나카의 자세가 읽히는 부분으로, 여기서 인민군은 자연스레 독일군으로 치환되는데 이를 통해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요코타 기지에서 처음 그가 맡은 직종은 통역이었으나 노무자감독(포맨)[18]으로 직종을 바꾸어 곧바로 헤드 포맨이 되었다. 그 이유는 통역보다 급료가

17) 전게서, p.299.
18) Foreman, 선박 하역작업의 감독자.

www.kci.go.kr

더 많았고 “헤드 포맨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내 밑에 이렇게 많은 부하가 있던 것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때뿐이었다”[19]는 회상에서 알 수 있듯 포맨이 된 것을 약간의 사회적 성공처럼 뿌듯하게 느꼈기 때문인 듯하다. 다나카에 따르면 요코타기지는 “일은 주야 2교대. 전에는 일본인 노무자가 6, 7명이었던 밤 덤프는 노무자는 사백 명 가까이 늘고 운전자만도 백 명 정도의 큰 규모”[20]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전황의 확대에 따라 엄청난 양의 전쟁 물자가 소화되었고 자연히 미군 기지에 고용되는 일본인 노동자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밤 덤프의 이러한 변화는 패전으로 몰락한 일본경제의 부활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광경으로 다나카도 한국전쟁의 수혜자가 되어 “내가 요코타 기지에서 일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나도 주위의 사람들도 별로 배고프지 않게 되었다.”[21]고 회상할 정도였다. 한국전쟁은 일본을 절대 빈곤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전부터 다나카에게 늘 드리워져 있던 가난의 그림자를 처음으로 걷어내 주었다.

그러던 1952년 5월 다나카는 요코타 기지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하게 되는데 ‘3분 이내로 요코타 기지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는다. 이유는 단지 미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으로 스파이행위나 특정정당의 당원에 대한 ‘보안해고’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나중에 듣게 된다. “미군의 어딘가 정보부로부터 나는 감시당하고 있던 것일까? 이렇게 별 볼일 없는 남자를 몰래 감시하고 있던 정보부가 있다면 도대체 어떤 정보부일까?”[22]라는 다나카의 다분히 원망 섞인 회상에서 그의 아쉬움이 드러난다. 그러나 뛰어난 영어실력 때문이었을까, 그는 1953년에 요코하마시 직업안정소를 통하여 다시 미군의 화물수원 시험을 통과하고 이번에는 요코하마 항에서 근무하게 된다. 「상륙」에 등장하는 노동자들은 모두 요코하마 직업안정소를 통해 모집되어 배에 오르게 되는데 그러한 설정은 이때의 체험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나카는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일단락 된 후인 1954년에는 미군 제46 의학연구소 생화학부로 자리를 옮겨 미군과 관련된 일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3년 후인 1957년에「상륙」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다음 절에서는 「상륙」을 전후 민주주의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19) 전게서, p.299.
20) 전게서, p.299.
21) 전게서, p.304.
22) 전게서, p.304.

www.kci.go.kr

3. 전후 민주주의적 가치와 한국전쟁

3.1. 평화주의와 국민주권

분석에 앞서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륙」의 줄거리를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요코하마 직업안정소를 통해 모집되어 동경만에서 미군의 전쟁 물자(전차 및 식량)를 싣고 출항한 7명의 노동자들[23]은 고베항에 들른 뒤 정확한 최종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 한다. 그들은 배가 한국전쟁이 일어난 조선행인지 인도차이나 반도행인지로 의견이 나뉘어 대립하지만 며칠간의 항해 끝에 자신들이 탄 배가 조선으로 향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 절망감을 느낀 이들은 어느 날 밤 정박한 항구에서 그곳이 아직 조선이 아니며 조선과 가장 가까운 기타큐슈의 모지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필사의 탈출극을 벌인다. 결국 7명중 배에 남은 1명을 제외한 6명의 사내들이 탈출을 감행하지만 평소 전쟁에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가슴이 얇은 젊은 남자는 탈출에 실패하며 끝을 맺는다.

「상륙」의 배경이 되는 한국전쟁의 개전초기, 한국정부는 미국에 긴급하게 무기 및 탄약지원을 요구하였고 미국은 GHQ의 예하 기구인 일본 상선관리국을 통해 철수요원 및 군수품수송을 실시하였다. 이 활동은 일체비밀이었기 때문에 출항 후에는 무선교신을 금지하고 등화관제를 실시하였다. 이들 선박은 교전지역 운항 시에 미군의 지원으로 인명 및 선박안전을 보장받고, 위험지역 수당을 받았다.[24] 「상륙」속 노동자들도 비밀에 부쳐진 임무 때문에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항해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또한 그들은 원래부터 바다와 배에 능숙한 항해 인력이 아닌 갑자기 모집된 일용직 노동자들로서 운송업무의 가장 말단에 위치했는데, 이런 계층적 성격으로 인한 임무에 대한 무지는 소설의 비극적 결말의 복선으로 그려지게 된다. GHQ의 명령으로 수송임무를 맡은 일본상선 관리국은 일본정부 예하에 설치된 상선 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운영되었는데, 이 상선 관리위원회는 본래 1942년의 전시 해운 관리령에

23) 전반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필로폰 중독자이자 매사에 주도적인 산코(三公)와 자칭 레이테섬 생존자인 전 육군중사(軍曹) 남방(南方), 반(班)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오야지(おやじ), 친피라까지는 못된다고 하여 산코가 이름 붙여준 피라(ピラ), 전직 야쿠자로 추측되는 반장(班長), 외모묘사가 곧 이름인 가슴이 얇은 젊은 남자(胸のうすい若い男)그리고 이들을 감독하는 포맨(フォアマン)이다.

24) 이종판의 전게논문, p.146-147.

www.kci.go.kr

의해 설치되어 태평양전쟁 당시 군 수송 관리 및 통제를 위한 조직이었으며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기능이 재개 되었다.[25] 즉 「상륙」의 배경은 패전으로 기능불능이 되었던 과거 태평양전쟁의 유산들이 한국전쟁으로 부활하는 상황으로 이는 소설이 가진 문제적 성격을 배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륙」의 플롯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노동자들이 수송선을 타고 기타큐슈의 모지항에 도착하기까지 배안에서 대화하는 내용이며 후반부는 배에서 나온 노동자들이 모지에 상륙하여 탈출하는 내용이다. 전반부 첫 장면은 산코가, 자신은 히로뽕 중독을 고치려고 배에 탔으며 "너희들처럼, 조선의 전쟁에서 시시한 돈을 벌려는 거랑은 다르다"는 다소 모순되는 이야기로 다른 노동자들을 도발하며 시작된다. 산코는 "정말로 조선에 끌려가는 거야?"라는 오야지의 물음에 이 배는 전차대를 나르고 있고 전차대가 탱크를 갖고 가는 곳은 정해져있지 않느냐고 말한 뒤 자신들이 조선행이라고 못 박는다. 그러자 남방은 산코의 주장에 맞서 자신들은 조선이 아닌 인도차이나 반도로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야지가 전쟁을 하고 있는 곳은 조선이라고 반박하자 그는 "불인(仏印)전쟁을 모르는 거야? 역시나 공산군과의 전투다"라고 설명한다. 남방의 말을 통해 배안의 노동자들이 한국전쟁의 성격이 공산군과의 전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방이 말한 불인전쟁(인도차이나 전쟁, 1946-1954)은 인도차이나 반도 3국(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영유를 유지하기 위해 프랑스가 일으킨 전쟁으로 월맹세력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베트남의 분리를 지지한 미국의 개입이 훗날 베트남 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하였다. 남방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기습상륙요원들이며 수륙양용(水陸両用)탱크를 이용해 적전상륙(敵前上陸)하게 된다는 다소 엉뚱한 주장을 펼친다. 결과적으로 남방은 공상에 가까운 착각을 하고 있지만 이런 남방의 주장이 오히려 배안에서 설득력을 얻어가는 이유는 냉전 상황과 관련이 있다. 남방의 말에 조선행을 외쳤던 산코도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고, 오야지는 겁을 집어먹은 듯 "적전상륙?"을 외친다. 피라도 담배 갑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제기랄 적전상륙이라고!"라며 남방의 말을 그대로 믿는 듯 분노하기까지 한다. 노동자들의 이런 감정적 변화를 통해「상륙」의 모두에서는 현재 남진중인 공산세력과 북상 할지도 모르는 잠재적 공산세력의 틈바구니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25) 전게논문, p.146.

www.kci.go.kr

냉전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일본인들의 무의식을 표면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무의식과 길항하는 인물이 한 명 등장한다. 그가 바로 등장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외모가 묘사되어 있는 가슴이 얇은 젊은 남자(이하 '남자')이다. 그는 과격한 남방의 말을 듣고 아래 인용문과 같이 반응한다.

> "싸울 의지가 없는 자를 설마……" 드러누워 천장만 보고 있는 남자가 누운 자세 그대로 입을 열었다. 아직 학생일지 모르는 가슴이 얇은 젊은 남자였다.
> "하지만 전투가 벌어지는 한가운데 이 배가 돌진한다면 우리도 방전(防戦)은 해야 해. 조금 있으면 병기가 주어질 거야"
> "우리한테도?" 피라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 "……응" 조금 간격을 두고 자칭 전 육군 중사인 남방이 대답했다.
> "나는 못 믿겠어" 가슴이 얇은 젊은 남자는 역시나 천장에 눈을 고정한 채로 중얼 거렸다.[26]

먼저 '남자'의 인물조형을 살펴보면 '가슴이 얇다(胸のうすい)'는 것은 대단히 마른 체형을 말하는 것으로 연약하면서도 날카로운 느낌을 준다. 그리고 학생일지도 모른다는 묘사와 더불어 '젊은 남자(若い男)'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작업자들보다 그가 상대적으로 어리고 교육받은 느낌을 지니게 하고 있다. 그는 히로뽕 중독자, 전직 군인, 친피라, 전직 야쿠자 등 거친 이미지를 가진 다른 노동자들 사이에서 묘하게 어울리지 않는 인물로서 작중 시점(1950년 가을 즈음?)을 기준으로 정규 학교교육내지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임을 짐작하게 한다.[27] 그런 사실은 다른 노동자들이 표면화한 무의식에 휩쓸리지 않는 '남자'의 말을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 '남자'는 남방의 주장을 듣고 냉소적인 태도로 "싸울 의지가 없는 자를, 설마(戦う意思のない者を、まさか)"라고 일축해 버린다. 여기서 '남자'가 말한 '싸울 의지가 없는 자'는 일차적으로 '남자' 자신을 가리키지만 문맥상 두 가지 의미로 확대해서 해석가능하다. 먼저 싸울 의지

26) 텍스트, pp.163-164.

27) 가령 방한복이 지급될 때 지급순서를 정하는 제비뽑기를 만들기 위해 산코가 당연한 듯 남자에게 펜을 빌리는 장면(p.171)이나 배가 기타큐슈의 모지항에 들어서자 창고처럼 보이는 건물에 적힌 한자를 아무도 읽지 못할 때 나서서 읽어 주는 장면(p.176) 등이 그것이다. 필자는 다나카가 자신을 모델로 하여 '남자'의 인물조형을 했다고 생각한다. 다나카는 대단히 왜소한 체형에 소설 속 시간인 1950년 즈음 아직 25세로 '남자'와 매우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www.kci.go.kr

가 없다는 것은 싸움을 포기했다는 것으로 위 대화의 성격상 전쟁의 포기를 의미한다. 즉 일본국헌법 제9조[28]에 기초하여 무력행사 및 전력보유, 교전권을 포기한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합국 총사령부에 의해 실행된 일본의 민주화는, 점령하라는 상황에 맞추어 일본이 두 번 다시 연합국의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게 일본의 군국주의를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 내용으로 군국주의 지도자의 추방과 극동 군사재판에 의한 침략전쟁 지도자 처벌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헌법 제9조에 의한 일본의 전쟁방기와 전력 불소지 선언은 그 집약이라고 할 수 있다.[29] 다음으로 '의지'에 방점을 두고 읽었을 때 의사결정의 주체가 누구인가가 문제시되는데, 대일본제국헌법에 기초해 주권이 천황에게 있던 전전에는 천황의 명령에 싸울 의지가 없어도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지만 신헌법을 통해 국가의 의사 결정 권한, 즉 주권이 국민(국민의 대표인 국회)에게 이양되었고 싸울 의지가 없는 국민은 전쟁에 동원되지 않는다는 국민주권사상을 내포한 반응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민주주의 교육을 받고 신헌법의 가치를 내면화한 것으로 추측되는 '남자'가 말한 '싸울 의지가 없는 자'는 '남자' 자신을 가리킴과 동시에 일본인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시선을 천장에 고정한 채 바닥에 누워 동요 없이 '설마' 라고 말하는 '남자'의 말투와 태도는 전후 민주주의의 절대성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미국이 일본에 이식한 민주주의를 미국 스스로 부정할 리 없다는 확신과 동시에 남방의 무지를 비웃는 자세인 것이다.

그러나 남방도 '남자'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적전상륙을 하게 되면 방전(防戦)을 해야 하며 곧 병기가 주어질 거라고 주장한다. 방전은 적의 군사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싸움으로 병기가 주어진다는 것은 패전으로 무장해제 된 일본의 재무장이 전제되어 있다. 냉전기 소련과 중국에 대항하여 일본의 방위력을 향상시키길 원했던 미국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일본정부에 재군비를 요구하게 된다. 한국전쟁 발발로부터 약 두 달 뒤인 1950년 8월 10일, 육상자위대의 전신이 된 경찰예비대의 창설이 공포, 시행되었으며[30] 이는 평화헌법의 근간

28) 憲法 第二章 第九条（戦争放棄、軍備及び交戦権の否認） 1.日本国民は、正義と秩序を基調とする国際平和を誠実に希求し、国権の発動たる戦争と、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は、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 2.前項の目的を達するため、陸海空軍その他の戦力は、これを保持しない。国の交戦権は、これを認めない。

29) 中村政則外編(1995)『戦後民主主義』岩波書店、p.4.

30) 김남은(2018)「미국의 대일압력과 요시다 노선의 대미협조외교에 대한 재고찰」『일본문화학보』79, 한국일본문화학회, p.61.

www.kci.go.kr

을 사실상 뒤흔드는 것이었다. 이에 더해 중공의 개입으로 한국전쟁의 전황이 불리해지자 1951년에는 경찰예비대를 군대조직으로 개편하여 한국전쟁에 실제 투입시키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 평화4원칙(전면강화, 중립견지, 군사기지제공반대, 재군비반대)을 내건 저항운동이 격화되고, 철도, 항만, 자동차등 후방지원이나 전쟁특수와 관계가 깊은 노동조합에서는 궐기대회를 열어 평화 4원칙을 지키라고 강력히 요구하기도 하였다.[31] 자칭 레이테섬 생존자인 남방은 상륙해오는 미군과 싸웠던 자신의 가혹한 전쟁경험을 환기시키며 이번에는 반대로 미군과 함께 전전의 구질서로 회기하기를 욕망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데, 반색을 하며 병기가 주어지냐고 되묻는 피라는 그러한 욕망을 무비판적으로 간단히 용인해버리는 일본인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다. '남자'는 남방의 말에 다시 "나는 믿을 수 없어(ぼくは信じられん)"라고 말하며 역시나 자세를 바꾸지 않고 중얼거리는 행위를 통해 남방이나 피라의 생각을 철저히 부정하는 단호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상으로 분석한 인용문은 짧지만 인물의 조형과 그 인물들 간 인식의 강렬한 대립을 통해 한국전쟁으로 촉발된 전후 일본의 민주주의적 가치 중 평화주의와 국민주권의 훼손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3.2. 기본적 인권의 존중

이어지는 대화에서는 살인(人殺し)의 문제와 적전도망 및 항복을 막고 전투를 독려, 감시하는 독전대(督戰隊)의 존재 문제가 화제가 된다. 다음은 그 인용문이다.

> "전쟁을 좋아하는 패들과 그걸로 돈을 버는 자는 맘대로 하면 돼. 나는 싫어. 아무리 생각해도 살인은 좋은 일이 아니야"
> "살인이 나쁘다고 누가 정했어, 어? 살인은 하면 안 되고 소는 죽여서 먹어도 괜찮다는 거야?" 산코는 가슴이 얇은 남자 쪽으로 몸을 돌렸다.
> "소와 사람은 별개다"
> "어떻게 다른데. 소도 생물이야. 인간의 마음대로 죽임을 당하면 재미없잖아. 뭐 그런 건 어찌됐든 상관없어. 우리들 뒤에 독전대(督戰隊)가 있어서 싸우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면 어쩔 거야?"

31) 이종판(2003)의 전게논문, p.134.

www.kci.go.kr

> “독전대? 그건 무슨 소리야? 아니, 그런 게 정말로……” 오야지는 산코의 무릎에 손을 얹었다.
> “독전대란 말이지? 전투가 벌어지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군” 남방은 팔짱을 꼈다.
> “그런 비인도적인 일을, 설마……”가슴이 얇은 젊은 남자는 터무니없다는 표정을 지었다.[32]

인용문에서 ‘남자’는 ‘전쟁’을 곧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두 단어를 바꾸어 넣을 경우 ‘살인’을 좋아하는 ‘패들(連中)’은 복수(複数)로, ‘살인으로 돈을 버는 자(者)’는 단수로 표현하고 있다. 먼저 ‘살인을 즐기는 패들’은 전쟁을 벌이는 당사자인 미국, 한국, 북한, 소련 등으로 볼 수 있고 ‘살인으로 돈을 버는 자’는 그 사이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일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남자’는 자신을 그러한 주체들과 분리시켜 윤리적 정당성을 획득하려고 하고 있다. 살인이 왜 나쁘냐고 시비를 걸어오는 산코의 말에서 ‘남자’의 규정대로 다시 ‘살인’을 ‘전쟁’으로 치환하면 “전쟁이 나쁘다고 누가 정했어, 어? 전쟁은 하면 안 되고 소는 죽여서 먹어도 괜찮다는 거야?”라는 식의 비문(非文)이 생성되며 논리적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남자’는 이를 “소와 사람은 별개다”라는 수사로 논파하고 전쟁이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명과 윤리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 와중에 산코가 제기한 ‘싸우지 않으면(살인하지 않으면) 죽인다(살인한다)’는 독전대의 존재 가능성은 ‘남자’에게 심각한 비인도적 행위로 비춰지는데, 그 이유는 독전대의 살인 대상이 적군도 아닌 아군이며 더 나아가 ‘남자’가 살인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를 인도적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남자’의 이 믿음은 신헌법의 3대원칙 중 인간의 생존할 권리를 중시한 기본적 인권의 존중과 관련이 있는데, 인도주의야말로 인권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후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짐작되는 ‘남자’에게 독전대의 존재는 전후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33] 그 결과 산코와 오야지, 남방이 독전대의 존재 가능성을 언급하며 또다시 형성된 대립구도 가운데서 ‘남자’는 ‘논할 가치도 없다는 얼굴(論外だという顔)’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

32) 텍스트, pp.164-165
33) 실제 독전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와 소련군, 중국군 등 과거 미국과 적대적이었거나 한국전쟁 당시 적대중인 국가들에서 존재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독전대의 존재 문제를 다룬 것은 다나카의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www.kci.go.kr

그런데 미국이 이식한 전후 민주주의에 대한 '남자'의 믿음에 균열이 발생하는 일이 생긴다. 동경만에서 물자를 싣고 출항 한 직후 배가 흔들리는 바람에 탱크를 묶던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작업자가 이에 맞고 바다에 떨어져 죽는 사고가 있었는데 산코가 그 사건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 "하지만, 그녀석이 바다에 빠졌을 때는 어땠어? 본부의 서전트(중사)한테 보고하니까, 뭐라고 떨어졌다고?, 제기랄, 그렇게 내뱉을 뿐 배를 세우려고도 하지 않았어" 산코는 입술을 말았다.
> 모두 입을 다물고 말았다. 한참 뒤 가슴이 얇은 젊은 남자가 말했다.
> "아니, 구할 수 있을 줄 알았다면……"
> "구할 수 있던 못 구하던 배를 세우고……"라고 산코와 남방은 동시에 말했지만 말을 끊었다.
> (중략)
> "일본인이 바다에 빠진들 누가 구해주겠어" 남방은 토해내듯 말했다.
> "아니, 나는……"이라고 가슴이 얇은 젊은 남자가 또 말끝을 흐리자 순간 오야지가 외쳤다.[34]

작업자가 바다에 빠졌는데도 본부의 미군 중사에게 보고하자 '제기랄(ガッデメ)'이라고 말 할 뿐 구해주려고도 하지 않았던데 대해 산코는 '분한 얼굴(唇を曲げる)'을 한다. 일순 조용해진 배안에서 마치 미군을 변호하려는 듯 '남자'는 "아니, 구할 수 있을 줄 알았다면(いや、助かると分かってれば……)"이라고 입을 뗐다가 결국 말을 잇지 못 한다. 구할 수 있을 줄 알았다면 배를 세우고 구조했겠지만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그냥 배를 몰았을 것이라고 미군의 행동을 옹호하는 문맥으로 풀이되지만 결국 '남자'가 말을 잇지 못한 것은 자신으로서도 납득할 수 없는 대답이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남방은 "일본인이 바다에 빠진 들 누가 구해주겠어"라는 회의적 물음을 던지는데 이 질문은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제기의 성격을 가지는 질문으로, '누가'에 관하여 '남자'는 마찬가지로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말끝을 흐렸다(云いかけた)'. 전쟁이라는 상황 하에서 미군으로 상징되는 미국도 인도주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접한 뒤 '남자'의 미국과 민주주의에 대한 절대적 믿음도 조금씩 약해져 간다. 그런 심경의 변화는 항해를 거듭하는 가운데 '남자'의 말과 행동(자세)의

34) 텍스트, pp.165-166.

www.kci.go.kr

변화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만약에 그런 거라면 나는 분명히 항의하겠어.” 방한의를 입은 채로 뒹굴 거리던 가슴이 얇은 젊은 남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말했다.
> “우리들은 동경만에서의 하역작업으로 알고 일하러 왔어. 살인을 하기위해 고용된 게 아니야.”
> (중략)
> “나는 싫어. 전쟁은 싫다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죽는 것도 싫단 말이야” 가슴이 얇은 젊은 남자가 입술을 깨물었다.35)

노동자들에게 방한복이 지급되고 배가 북쪽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확실해지자 피라는 자신들이 가는 곳이 혹시 시베리아인지 궁금해 한다. 그러자 남방이 나서 블라디보스톡일지도 모른다며 거든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남자’는 인용문과 같이 이전에 없던 자세로 ‘갑자기 일어나(急に起き上って)’ 분명히 항의하겠다고 선언한다. “살인을 하기위해 고용된 게 아니야”라는 남자의 외침은 ‘나는 군인으로 고용된 게 아니야’로 바꾸어 말 할 수 있는데, 이후 배가 한국전쟁이 일어난 조선행임이 분명해지자 ‘남자’는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싫어(いやだ)”를 연발하기 시작한다. 이를 통해 ‘남자’가 어느새 자신이 살인을 위한 군인으로서 전쟁에 동원되었으며 배에서 내려 상륙함과 동시에 ‘죽는 것(殺されるの)’을 기정사실로 믿어 버리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욕망의 대립을 상징하는 공간인 배안에서 점점 과격해져가는 다른 노동자들의 ‘공상’을 전후 민주주의적 가치에 입각하여 거리를 두고 객관화하려 했던 ‘남자’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이라는 신헌법의 가치에 회의를 품게 됨으로써 결국 거리두기에 실패하게 되어버린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모지항에 상륙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4. 모지항 상륙의 역설

노동자들의 모지항 상륙이 그려지는 후반부는, 어느 날 밤 항해를 계속하던 배가 멈춘 것을 알아차린 노동자들이 몰래 해치를 열고 나와 접안된 배위에서

35) 텍스트, pp.172-174.

www.kci.go.kr

자신들이 부산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어둠 속에 멀리 보이는 창고 같은 건물의 외벽에는 한자로 'B창고, 관계자 외 출입 금지(B倉庫、無用の者立入禁止)'라고 적혀 있고 총을 멘 두 명의 경비원이 배 위로 올라오는데 처음엔 미군인줄 알았던 경비원들은 일본인이었다. 그 중 한 명에게서 이곳이 모지라는 것을 들은 노동자들은 놀람과 동시에 흥분상태가 된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아직 일본에 있으며 마지막으로 도망칠 기회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모지는 어떤 곳이며 노동자들이 탄 배는 왜 부산이 아닌 모지에 정박한 것일까?

행정구역상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에 위치한 모지는 제국일본 시절 인근에 위치한 지쿠호(筑峯)시의 석탄 적출항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6대항인 동경, 요코하마, 나고야, 고베, 오사카, 관문(関門, 시모노세키와 모지)항 중 유일하게 아시아에 면접한 모지항은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로[36] 한국전쟁당시 미 본토에서 증원된 부대가 일본에서 예행연습을 실시한 후에 전장에 투입될 때 사용하던 항구였다.[37] 또 인천상륙작전 직후 미군은 물자의 양륙에 많은 배와 인력을 필요로 했고 이 시기 일본의 기범선이 협력했는데, 그 기범선의 집결지가 모지였다.[38] 한편 모지, 고쿠라항 주변은 미군병사에 의한 집단 탈주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전사한 군인의 유체가 송환되는 장소로도 이용되었는데 미군에게도 일본인에게도 전쟁의 공포가 피부로 와 닿는 장소로 전쟁터로 떠나는 자들과 돌아오는 자들의 생과 사가 교차되는 곳 이었다.[39] 정리하자면 모지는 소설 속에서도 현실에서도 반드시 이곳을 거쳐야만 전쟁이 일어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자 미국의 요구로 한국전쟁에 관여한 일본의 전쟁협력을 상징하는 지역이었다.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작중 노동자들이 탄 배가 식량과 전차를 싣고 모지에 정박한 것도 한국

36) 小野俊彦(2007)「門司港の朝鮮人港湾労務者-主体になり損ね,暴力を記憶する」『Ritsumeikan studies in language and culture』19(2)、立命館大学国際言語文化研究所、p.127.

37) 예를 들면 알래스카 주둔 미 제3사단도 전장에 투입되기 전 사격훈련을 비롯한 예행연습을 실시하고 모지항을 이용하여 한반도에 들어왔다. 이종판의 전게논문, p.145.

38) 동서기선주식회사와 JLC(Japan Logistical Command: 在日兵站司令部)의 사이에 기범선 120척, 모선1척, 수리선1척(선원은 합계1300명)의 계약이 체결되어 기범선은 1950년 9월 18일 모지항에 집결한다. 그리고 모지항을 출발, 부산을 경유해 97척의 기범선, 모선 1척 및 수리선 1척이 10월 2일부터 4일에 걸쳐 인천해역에서 군수물자부터 일용품에 걸친 여러 가지 물자를 군의 수송선에서 해안에 끌어 올리는 작업에 종사했다. 石丸安蔵의 전게논문, p.61.

39) 1950년 7월 11일에 발생한 미군집단 탈주사건은 마츠모토 세이쵸가 1958년 『黒地の絵』로 소설화 하였다. 전게논문, p.61.

www.kci.go.kr

으로 출발하기 위한 마지막 집결이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자들이 모지에 상륙은 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자신들이 있는 곳이 모지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물사다리를 이용해 배 밑으로 내려가려던 피라에게 일본인 경비원은 '거친 동작'으로 옆구리에 총을 겨누고 '이 봐 뭐하는 거야 조선으로 가는 일본인 노무자들은 절대로 배에서 내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라고 경고한다. 이 명령은 미군이 내린 것으로 그 배경에는 전쟁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되는 일본의 노동자들을 한국의 해역으로 보내는데 따른 헌법 위배 요소를 감추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 자연스레 노동자들의 임무는 철저한 비밀에 부쳐질 수밖에 없었고 그 때문에 당시 실제 노동자들은 아무런 동의나 사전 고지 없이 기본적인 인권, 자유를 제한 당하거나 심한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40]

그러나 "내지의 땅을 밟는 것도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남방의 말처럼 도한(渡韓)을 곧 죽음으로 받아들인 노동자들은 경비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틈타 '상륙'을 감행한다. 갑판에 서서 주저하고 있던 '남자'는 "이 배는 틀림없이 조선행이야. 전쟁이 싫으면 여기서 내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라는 산코의 말에 여전히 망설이면서도 결국 산코의 팔에 이끌려 '서투르고 기계적인 동작'으로 현측에 다가선다. 노동자들의 탈출이 시작되자 서치라이트 불빛이 비춰고 총을 겨눈 일본인 경비원들은 "멈춰, 멈추라고, 멈추지 않으면 쏜다(止まれ、とまれ！とまらんと射つぞ！)"를 연발하고 뒤이어 전차대의 미군 상사는 "스톱! 헤이 스톱! (ストップ！ヘイ、ストップ！)"을 외치며 긴박한 상황이 연출된다. 주의 할 점은 미군 전차대의 상사는 멈추라고만 했지 발포한다는 말은 하지 않는데 반해 일본인 경비원(가드)들은 계속해서 발포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 인용은 '남자'의 죽음이 클로즈업되는 마지막 장면이다.

> 전차대의 상사가 현측으로 다가왔다. 손에는 군용의 45구경권총을 쥐고 있었다. 그때 포어맨이 앞으로 넘어지며 앗, 하고 소리를 냈다. 가슴이 얇은 젊은

40) 해상 운송 임무 수행 중 미군에 의한 발포, 구타 등 폭행 행위가 적지 않았고 부상자도 발생 했다. 한국전쟁이 확대되면서 노조활동이 강해지자 감독을 하던 미군병사들의 구타사건을 계기로 각지에서 무기수송 거부 투쟁을 시작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군수물자 수송의 중심지였던 오오사카, 고베, 요코하마에서 극심하여 가혹한 노동, 저임금, 체벌, 무기위협 등에 대한 불만으로 노동자들은 지부단위로 스트라이크를 결의하고, 물자적하를 거부하는 운동으로 확산되기도 하였다. 이종판의 전게논문 pp.147-148.

www.kci.go.kr

> 남자는 뛰면서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대로 두세 발자국 못가 발을 멈추고 포어맨이 있는 곳으로 돌아 뛰었다. 피라의 모습이 서치라이트 불빛 밖으로 사라졌다. '스톱' 전차대 상사의 권총이 불을 뿜었다. 그러나 조준은 벗어나 있었다. 그 소리에 포어맨을 일으켜 안으려던 깡마른 젊은이가 두 팔을 놓고 뒤돌아보았다. 그와 동시에 텅 하는 산탄음이 들렸다. 전차대 상사의 권총이 울린 순간, 총의 방아쇠에 걸린 가드의 손가락이 반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깡마른 젊은이의 쳐든 두 손과 얼굴 한쪽에서 피가 튀어 올랐다. 그는 포어맨의 몸 위에 하늘을 바라보고 쓰러져 피 흐르는 손으로 역시나 피가 뿜어져 나오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중략) 창고 옆쪽에서 총소리가 울렸다. 자동소총인 듯 연속적인 음이었다.41)

배에 남기로 한 야쿠자 출신의 반장을 제외한 6명의 노동자 중 피라가 선두에 서고 오야지, 남방, 산코, '남자', 포맨의 순서로 도망치고 있었다. 그러나 회충감염으로 배안에서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포맨이 가까스로 탈출하려다가 넘어지자 포맨을 돌아본 '남자'는 두세 발짝을 못 가 결국 포맨을 향해 되돌아간다. 전쟁영화에서 뒤 따르던 전우가 쓰러지자 이를 구하기 위해 적들이 노려보는 방향으로 전장을 거슬러 달리는 클리셰를 떠올리게 하는 이 장면은 배에서 떨어진 동료를 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린 과거의 사건을 환기시킨다. 바다에 떨어져 도움을 기다렸을 죽은 동료와 지금 넘어져 있는 포맨이 오버랩되는 것이다. 그 순간 '발을 멈추고(足をとめ)' '돌아 뛴(かけもどった)' '남자'가 포맨을 '일으켜 안으려 한(だき起こそうとした)' 행위는, '배를 멈추고(船を停めて)' 되돌아가 동료를 구조하지 못했던 과거를 극복하려는 행위로 해석 할 수 있다. 다른 노동자들이 동료를 뒤에 두고 그냥 도망치는 와중에 '남자'는 자신의 인도주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일본인이 바다에 빠진 들 누가 구해주겠어"라는 남방의 물음에 행동으로 답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 '남자'에게 미군 전차대 상사는 '스톱'을 외치고 권총을 발사한다. 그런데 다나카는 여기서 '조준은 벗어나 있었다(狙いは外してあった)'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사가 의도적으로 정조준하지 않고 빗나가게 발사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인 경비원은 포맨을 일으켜 안으려던 손을 떼고 권총소리가 나는 곳을 돌아보는 '남자'를 향해 반사적으로 방아쇠를 당겨 남자를 맞힌다. 다나카는 이 장면에서도 읽는 이로 하여금 마치 영화를 보는듯한 느낌을 갖게

41) 텍스트, pp.183-184.

www.kci.go.kr

하는데, 상사의 발포에도 무사한 듯 뒤돌아보는 남자의 행동을 통해 독자를 일단 안심 시킨 뒤 곧이어 생각지 못한 총격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충격을 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나카는 피의 이미지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일본인 경비원이 발사한 총은 보통 총소리 탕(ドン)보다 더 둔탁한 '텅(ズン)'소리를 내며 남자의 손과 얼굴을 동시에 맞힌 것으로 볼 때 산탄총(작은 여러 개의 탄환이 넓은 면적으로 흩어지도록 발사되는 총)으로 볼 수 는데 총을 맞은 '남자'는 "양손과 얼굴 일면으로부터 피가 튀었(両手と顔一面から血が飛び散った)"고 하늘을 바라보고 쓰러져 "피가 흐르는 손으로, 역시 피가 뿜어져 나오는 머리를 감싸 쥐었(血が流れ手で、やはり血がふき出る頭をかかえた)"다. 소설의 클라이맥스인 이 장면에서 다나카는 마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힌 양손과, 가시관을 쓴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예수처럼 '남자'가 양손과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포맨의 몸 위로 쓰러져 그를 덮는 장면을 통하여 이 피가 포맨을 구하고 '남자'가 지불하는 대가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로서 '남자'가 돌아 뛴 행위가 완성된 것이다. 다나카는 전쟁이 일어난 한국이 아닌 기타큐슈의 모지항 상륙이라고 하는 아이러니를 역으로 이용하여 휴머니즘의 회복을 꾀하였고 이것이야말로 모지항 상륙의 역설이라고 말 할 수 있다.

한편 서치라이트를 피해 창고 쪽으로 달아난 다른 노동자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자동소총의 연속음이었다. 다나카는 '자동소총'을 명시함으로서 산탄총을 맞은 '남자'와 나머지들을 구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다른 노동자들의 생사여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죽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으며 반대로 '남자'는 적어도 아직 죽지 않은 상태로 결말을 맞이한다.

5. 나가기

이상으로 다나카의 전쟁체험을 한국전쟁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개관하고 소설「상륙」을 분석함으로서 다나카가 한국전쟁을 매개로 제기하려고 했던 문제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다나카는 전전 중국 전선에서 동료의 죽음과 기아 질병 등을 체험하고 전쟁과 전전체제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바꿔 말해 과거 군국주의에 대한 회의(懐疑)이며 소시민적인 반전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반

www.kci.go.kr

면 패전으로 미국이 일본에 이식한 ‘평화’는 더 이상 전쟁 없는 시대를 가져다 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자유진영에 편입되어 한국전쟁을 ‘수행’한 다나카와 일본은 조선특수(朝鮮特需)로 불리는 전후의 경제적 호황을 경험함과 동시에 전쟁협력과 평화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를 체험하게 된다. 다나카는 그러한 상황을「상륙」으로 그려낸 것이다.

중국 전선에서 패전을 맞이하고 적리아메바증상을 보여 상해에서부터 복원용 병원선인 히카와마루(氷川丸)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온 다나카는 ‘지옥선’으로 불린 병원선 안의 광경[42]을 이용해「상륙」의 공간인 배안을 창조해 냈다. 병원선 안은 불결함과 패전이 주는 절망감이 뒤섞인 ‘지옥’같은 공간임과 동시에 ‘영화’ 내지는 ‘만화’ 같은 비현실적인 공간이기도 했다. 다만 비현실성을 공통분모로 한「상륙」의 배안이 ‘지옥선’과 다른 점은 냉전체제에 편입된 점령기 일본의 무력감과 그로인한 전쟁의 공포가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뒤집어 생각하면 강렬한 평화에의 희구를 의미하는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 그 속에서 다나카는 전후의 새로운 가치관을 상징하는 ‘남자’가 어떻게 모지항에 상륙하게 되는가를 추적하여 전후와 한국전쟁이 맞물리는 지점을 들여다보려고 했다. 거기서 다나카가 목도한 것은 미국이 이식한 전후 민주주의적 가치의 상대성이었고 한국전쟁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간단히 부정되고 무력해질 수 있는가를 말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나카는 한국의 부산이 아닌 기타큐슈의 모지항 상륙이라는 아이러니를 통해 작중에서 인간성의 회복을 꾀하고 있다. 동료를 위해 돌아 뛰는 행위에 이어 총을 맞고 흘리는 ‘남자’의 피는 인간의 생존할 권리라는 인도주의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남자’가 바치는 희생이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기독교와 성서에 정통했던 다나카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흘린 보혈(피)로 인류의 죄 값을 치르고 구원 한다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모티브로 사용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결말로, 다나카의 인간 존중사상과 기독교와의 관계는 향후의 연구 과제라 하겠다.

「상륙」은 다나카의 전쟁소설을 논함에 있어 이제까지 논의가 미진했던 한

42) 「그야말로 영화에 나올 법한 마치 만화 같은 지옥선이었다. 오래되고 커다란 정크선(역자: 중국의 범선)으로 엔진은 없고 작은 증기선에 예인되었다. 물론 전등도 없다. 선저에는 전쟁에 진 부상병들이 정말이지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신음하고 배설물을 쏟아내며 뒹굴고 있었다. 영화와 다른 것은 항상 신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난 뒤 가끔씩 깔깔대고 웃는 정도였다.」다나카의 전게서, p.140.

www.kci.go.kr

국전쟁의 영역을 새롭게 위치시키는 작품임과 동시에 1950년대에 발표된 그의 초기 소설들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남은(2018)「미국의 대일압력과 요시다 노선의 대미협조외교에 대한 재고찰」『일본문화학보』79, 한국일본문화학회, p.61. (DOI : https://DOI.org/10.21481/jbunka..79.201811.053.)
이종판(2003)「한국전쟁기 유엔에 대한 일본의 협력활동」『군사』4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p.134, p.145, pp.146-147, pp.148-150.
池内紀(1988)「田中小実昌 · 人と作品」『昭和文学全集 第31巻』小学館、pp.957-960.
石丸安蔵(2007)「朝鮮戦争と日本の港湾—国連軍への支援とその影響—」『NIDS security studies』9(3)、防衛省防衛研究所、p.60, p.61.
伊藤義老(2005)「田中小実昌論ーその語りのあり方—」『愛知淑徳大学国語国文』28、愛知淑徳大学国文学会、p.173.
大庭萱朗(2006)「重なりあうもの 第三回」『公評』43(4)、公評社、p.81.
小野俊彦(2007)「門司港の朝鮮人港湾労務者-主体になり損ね,暴力を記憶する」『Ritsumeikan studies in language and culture』19(2)、立命館大学国際言語文化研究所、p.127.
関井光男編(2000)「田中小実昌年譜」『ユリイカ』32(9)、青土社、p.230.
多岐裕介(1985)「懐疑の果てに—田中小実昌『ポロポロ』」『批評果つる地平』旺史社、p.35.
田中小実昌(1957)『新潮』54(12)、新潮社、pp.149-159.
_____(1979)『ポロポロ』央公論社
_____(2003)『田中小実昌エッセイコレクション6自伝』筑摩文庫、pp.9-336.
_____(2005)『上陸』河出文庫、pp.159-184.
中村政則外編(1995)『戦後民主主義』岩波書店、p.4.
成田竜一(2012)「解説」『戦争と文学 1 朝鮮戦争』集英社、p.658.

논문 투고 일자 : 2019. 04. 14.
논문 심사 일자 : 2019. 05. 03.
게재 확정 일자 : 2019. 05. 07.

www.kci.go.kr

<要旨>

田中小実昌と朝鮮戦争
－小説「上陸」の考察を中心にして－

李文鎬

本論文は、田中小実昌文学における朝鮮戦争の位置と意味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戦前、中国戦線に送られた田中は鉄道警備隊に配属され、激しい戦闘は経験していなかったものの、たくさんの同僚の死を目撃し自らは伝染病に苦しめられた。復員後、東京大学に入学するやいなや米軍基地で働きはじめた田中は、朝鮮戦争が起きた1950年には横田基地のバンブ・ダンプで仕事についた。占領中という現実からアメリカが遂行する冷戦に編入されることを余儀なくされた日本で、田中は、朝鮮戦争の成り行きを米軍基地で見守っていたのである。朝鮮特需で戦前から続いた飢えと貧しさから解放された田中は、1957年に朝鮮戦争を背景とする小説「上陸」を発表した。「上陸」は、米軍の戦車を朝鮮半島まで運ぶ船の中で、戦後の民主主義的な価値観を内面化した主人公が、それに疑念を抱き、門司で降りてしまうまでの過程を描いている。田中は、「上陸」を通して日本の戦後と朝鮮戦争が遭遇する地点を探ろうとした。そこで彼が目の当たりにしたのは、絶対的なものだと信じていた平和主義、国民主権、基本的人権の尊重という戦後の民主主義の核心たる価値観が、朝鮮戦争の前でいかに簡単に否定され力を失なっていくのかということだった。しかし、田中は、韓国ではない北九州の門司へ上陸するというアイロニーを逆手ととり、損なわれたヒューマニズムの回復を図ろうとした。「上陸」は、田中の戦争小説を語るうえで、重視されることのなかった朝鮮戦争という領域を改めて位置づけさせる作品だといえよう。

Tanaka Komimasa and the Korean war
－focusing on *Landing*－

Lee, Moon-Ho

This study reviews the position and meaning of the Korean War in the literature of Tanaka Komimasa. Before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anaka was stationed on the Chinese war front as a railway guard. He never faced any major battles, but witnessed many deaths and suffered from a contagious disease. When the Korean War began in 1950, he began working at Camp Yokota. Japan had been swept into the Cold War by the United States occupancy and Tanaka witnessed the progression of the Korean War within the U.S. military. The Korean War liberated Japan from hunger and poverty prevailing through the pre-war era. In *Landing*, published in 1957, Tanaka intended to scrutinize the convergence of post-war Japan and the Korean War. He encountered the demise of many core values of post-war democracy with the outbreak of the War - namely pacifism, national sovereignty and basic human rights. In the novel, the protagonist is shipped to Korea during war time on a boat carrying U.S. tanks. As he internalizes post-war democratic values, he escapes at Moji. This irony of the protagonist landing in Moji, Kita-Kyushu instead of Korea, is Tanaka's attempt to restore lost humanism. *Landing*, thus, shows the importance of the underappreciated Korean War among Tanaka's war novels

www.kci.go.kr